



용기로 얻어낸 친구

장검중 3-1 박소울

나에게는 바라는 게 하나 있다. 단 하나, 유일한 친구를 얻는 것. 신이 나를 미워하는 건지 내 곁엔 항상 흠날리는 먼지뿐이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귀는 친구들마다 족족 나를 떠나버리니,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만 더욱 커져갔다. 이 상황에서 제일로 짜증 나는 것은 나는 나를 떠나버린 그 애들의 모습도 성격도 심지어는 이름마저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만나면 머리라도 한 대 쥐어 줄 법한데, 그 애들을 알 길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 노릇도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 명이 있다. 이주영. 그 애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리 내 잔상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을까. 웃는 모습이 예뻐나? 마음씨가 고왔나? 아무래도 모르겠다...

오늘은 내가 17세가 되고 처음으로 가는 고등학교이다. 사실 나는 아직 꿈도 없기에 대충 성적에 맞는 고등학교를 쓴 건데. 단번에 알아봤다, 이주영. 애가 여기 왜 있지? 그렇지만 개는... 모르겠다. 고등학교 첫날은 기대만큼 재밌지도 찬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다들 지쳐 보일 뿐이었다. 그래 내가 뭘 고등학교에서 재미를 누리겠다고...

“유소민..?”

누구지하고 뒤를 돌아봤을 땐 이주영이 아리송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 잘못 봤는데요.”

“뭐야 너 유소민 맞잖아 ㅋㅋ”

“.....뭐야.”

“우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치?”

“...어.”

“...너도 여기 고등학교 다닐 줄이야, 몰랐네.”

“...어.”

“그래, 오랜만에 보고 좋다. 나 가볼게!”

“가든지...”

오랜만에 보니까 좋긴 뭐가 좋다는 거야?... 이주영도 다름없이 날 떠나갔는데, 머리 한 대 쥐어 줬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 애를 보고도 뭐라 하지 않은 거야? 그 애가 내게 말을 걸 때까지도 나는 아무 말 못 한 거야? 너는 날 왜 떠났냐고. 여태 뭐 하고 지냈냐고...

기억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당연하게도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에게 버려지고 혼자 교실에 남아 여느 때와 같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한 날.

“저기...” 5학년 이후로 말을 처음 걸어준 애.

“우리 음악 이동 수업이래...” 유일하게 내게 다가와 준 애.

“아... 그래? 고마워.”

이주영의 첫인상은 볼품없고 만만했다. 왜 지가 말해놓고 지가 똥줄을 타는지. 나는 그런 이주영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이주영

도 내가 싫진 않았는지 우리는 그날 이후로 어울려 다녔다.

“있잖아, 의사 쌤이 나 암이래.”

“암?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초기에 발견해서 금방 치료된다고 하셔. 다행이지?”

“응... 다행이네.”

누가 알았을까. 그게 이주영과의 마지막 대화였을 줄을. 이주영이 한 달째 학교를 나오지 않자 나는 선생님께 물어봤다. 선생님은 이주영이 전학을 가버린 거였다. 거짓말. 너는 모를 거야. 거짓 말하면 얼굴에 티가 다 난다는 걸. ‘사실은 네가 많이 아팠나 보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멀쩡한 네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따지지도 못할뿐더러 말도 잘 나오지 않았을까... 오랜만에 들은 이주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른하기 짝이 없었다. ...짜증 나.

더 이상 애길 안 나눌 거라 생각한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주영은 정말 실 틈 없이 내게 말을 걸었다. 너는 생일이 언제냐는 등, 성격은 얼마나 나오냐는 등, 그러다 한 번 질문에 대답이라도 해주면 엄청 기쁜 표정으로 더 날뛰는 게 어처구니없었다. 뭐가 좋다고 저러는지, 원...

“너는 나한테 궁금한 건 없어?”

...궁금한 거? 아주 많다. 오히려 너보다 많을 수가 있다.

“...없어.”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용기가 안 난다. 너는 왜 날 떠났냐고 말하고 싶은데. 네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안 나. 또 네가 떠나



가 버릴까 봐. 두렵다.

“여태 뭐하면서 지냈어?”

“뭐하면서 지냈냐고? 내가 뭐 너라도 기다리면서 지냈을 것 같냐?”

아차 싶어 이주영을 봤을 때 이주영의 표정은 어둡지만서도 애써 밝히며 ‘아, 그래?’라며 말을 끝맺었다. 네가 그런 표정을 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 없이도 잘 지냈었으니까 걱정 말라고.”

“...아 그래.”

“넌 어떻게 지냈는데?”

“...나는 사실 잘 못 지냈어.”

“그래? 잘됐네.”

“...미안해.”

“뭐가.”

“말도 없이 사라진 거... 사실 나 많이 아팠어...”

“...너 머리 한 대 쥐어박아도 돼?”

“으응...?”

“...다신 말없이 사라지지 마.”

어쩌면 나는 이주영을 많이 보고팠었나 보다. 너에게 아직 못다한 말이 많을지라도 언젠간 용기 내어 네게 말하겠지.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내게 먼저 다가와 줘서 고맙다고.

내 유일한 친구가 되어 줘서 고맙다고.